

NBO, 포승에 PCBs 처리시설 건설

경기도는 2월26일 수원 도청에서 독일의 환경기업인 NBO와 2000만달러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NBO는 평택 포승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에 4월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처리시설을 건설해 2008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에 본사를 둔 NBO는 환경 및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세계 40여개국에 환경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PCBs 등 독성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 가입으로 2007년부터 전량 수거해 재 처리해야 한다.

PCBs는 변압기와 콘덴서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함유된 유기화합물질로 인체에 농축되면 암과 간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저하, 면역기능 장애, 생리 불순, 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7/02/27>